

대기업 LLM 인프라 활용 맞춤형 AX 가속화

중기부, ‘AI 스타트업 LLM 챗봇지’ 사업 공고… 8월 6일까지 신청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 전북 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전세희, 이하 전북중기청)에 따르면, 중기부는 대기업의 LLM 인프라를 혁신 AI 스타트업에 개방하고, 협업을 통해 도메인에 최적화된 AI 솔루션을 개발·상용화하는 ‘AI 스타트업 LLM 챗봇지’ 사업을 17일 공고한다고 밝혔다.

LLM(Large Language Model)은: 대규모 데이터를 학습하여 자연어를 이해하고 생성할 수 있는 거대 언어 모델이며, 도메인(Domain)은: 특정 산업이나 영역, 범위이다.

이번 공고는 산업과 기업에 AI 스타트업 주도의 AX 공급을 통해 생산성을 향상하고, 동시에 AI 스타트업의 신규 판로를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글로벌 시장에서 제조, 금융, 콘텐츠 등 다양한 분야에서 LLM에 기

반한 AI 기술이 적용되며, 기존 산업의 경쟁 구도를 혁신적으로 바꾸는 핵심 수단으로 빠르게 진화하고 있다.

중기부는 지난 3월부터 LLM 기반 AI 기술의 현장 적용을 원하는 LLM 인프라를 보유한 글로벌 빅테크 기업과 AI 스타트업 등 현장의 지속적인 협업 지원 요청을 받아들여, 이번 2차 추경에 동사업을 신설하였다.

이번 챗봇지에는 자체 LLM을 보유한 KT, 네이버 클라우드, 오라클 등 글로벌 대기업 3개사가 참여하여 총 19개 AX 과제를 공모하며, 과제에 신청한 AI 스타트업의 기술성 등을 평가하여, 총 20개사를 선정할 계획이다.

중기부는 AI 스타트업별 협업 자금을 최대 1억원 지원한다. 글로벌 대기업의 주요 과제와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KT는 자사 LLM인 ‘밀:음 2.0’을 활용하여 AI 보안 솔루션, 리포트·콘텐츠 생성 Agent 개발 등 5개 과제에 참여할 6개 AI 스타트업을 모집한다.

AI 스타트업에 LLM 활용 등 개발 환경, 사내 Agent와의 기술검증(PoC) 기회, 서비스 테스트를 위한 Cloud Test 환경 등을 제공하며, 우수 기업에는 KT 외부사업 컨소시엄 참여 기회와 공동 사업화 등을 통해 판로를 지원할 계획이다.

네이버 클라우드는 자사 LLM인 하이퍼 클로버(HyperCLOVA)X를 활용하여 제조 현장의 고도화된 데이터 기반의 판매·제조·수요 예측 AI Agent 개발 등 8개 과제에 참여할 8개 AI 스타트업을 모집한다.

AI 스타트업에 네이버 Cloud 크레딧,

오피스 아워, 인프라 아키텍처, 보안 컨설팅 등을 제공하며, 우수 기업에 대해서는 네이버 클라우드 마켓 플레이스 입점 기회, 매칭된 협력 기업의 솔루션 도입 등 신규 판로 확보를 지원할 계획이다.

오라클은 자사의 OCI Generative AI를 활용하여, 산업별(제조, 금융 등) AI 특화 솔루션 개발 등 6개 과제에 참여할 6개 AI 스타트업을 모집한다.

OCI Generative AI는 검증된 타사 LLM 모델을 자사 인프라에 최적화하여 API 형태로 제공하는 모델이다.

스타트업에 AI Service Cloud Test 환경과 컨설팅, 기술검증(PoC)을 위한 Cloud 크레딧 등을 제공한다. 우수 기업은 글로벌 마켓 플레이스에 솔루션을 등록 지원하고, 글로벌 파트너사를 통한 비즈 매칭 등 글로벌 판로 확보도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공고는 17일부터 8월 6일까지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오상근 기자



한국전기안전공사는 오는 29~31일 완주에 위치한 본사 앞마당에서 지역주민을 위한 물놀이 축제 ‘KESCO 썸머페스타’를 연다고 16일 밝혔다.

“물놀이 하러 전기안전공사로 오세요”

29~31일… 어린이 위한 ‘썸머페스타’ 개최

올해도 한국전기안전공사(사장 남화영) 앞마당이 물놀이장으로 변신한다.

한국전기안전공사는 오는 29~31일 완주에 위치한 본사 앞마당에서 지역주민을 위한 물놀이 축제 ‘KESCO 썸머페스타’를 연다고 16일 밝혔다.

올해로 5회를 맞는 ‘썸머페스타’는 어린이와 부모가 함께 즐길 수 있도록 꾸며지는 여름축제다. 한국전기안전공사가 주관하며 전북특별자치도와 전주시, 완주군이 함께 후원한다.

△워터슬라이드 △폴장 △페달보트 △분수터널 등 다양한 물놀이 시설이 설치된다. 가족이 함께 참

여할 수 있는 △전기안전 퀴즈 △가족 팀보 △수박 빨리먹기 △낚시 게임 △에어바운스 등 체험형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된다.

파라솔 쉼터와 남녀 탈의실 등 편의시설은 물론, 상시 안전요원을 배치해 사고 예방에도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개장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영유아 및 어린이를 동반한 지역주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한국전기안전공사 남화영 사장은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부모와 아이들이 함께 어울려 무더위를 이길 수 있는 시설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오상근 기자

‘전북은행 시그니처 향기’ 런칭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행장 백종일)은 ‘전북은행 시그니처 향기’를 런칭한다고 16일 밝혔다.

‘전북은행 시그니처 향기’는 전북은행의 따뜻한 금융과 고객이 잡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신뢰와 안정을 추구하는 보이지 않는 금융의 가치를 향기로 담아냈으며, 복잡하고 긴장될 수 있는 금융환경에서 ‘향기’를 통해 고객에게 따뜻한 ‘됨’을 선사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향은 전 세계 명품 브랜드와 협업해온 글로벌 향기 마케팅 기업 아이센트 전주 조향사 레이몬드 매치가 최고급 원료로 직접 조향했으며, 안전 인증을 가진 고급 퍼퓸 오일만을 사용했다. 특히 “향을 디자인 한다는 것은 새로운 경험을 선물하는 일”이라는 조향사의 철학을 바탕으로 탄생한 전북은행 시그니처 향기는 단순한 향을 넘어, 전북은행이 추구하는 브랜드 가치인 따뜻함, 신뢰 그리고 머물고 싶은 공간을 담았다.

전북은행 시그니처 향기는 16일부터 전북특별자치도 내·외 주요 지점(THE FIRST LOUNGE, 영업부, 팔복동지점, 안골지점, 경원동지점, 서신동지점, 전주한옥마을지점, 익산지점, 군산지점, 대전지점, 서울지점, 여의도지점) 총 12곳에서 경험할 수 있으며, 이 외에도 45개 지점에서 스프레이 및 시향지를 통해 고객들이 향기를 전북은행을 느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오상근 기자

국민연금, 수도 사용량 분석해 연금수급자 이상 징후 포착

수자원공사와 업무협약… 사용량 급감·중단 땀 확인조사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태현)은 지난 15일 한국수자원공사(사장 윤석대)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수도 사용 데이터(Data)를 활용한 국민연금 수급권 확인과 수급자 돌봄지원 강화에 나섰다.

공단은 그동안 수급자의 자진신고, 병원 진료내용, 안내문 반송 여부 등으로 수급권 변동 여부를 점검해 왔으며, 이번 협약을 통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수 수단인 수도 사용 데이터를 새로운 수급권 변동 확인 수단으로 도입하게 되었다. 이로써 공단은 수도 사용량이 급격히 감소하거나 장기간 수도 사용이 없는 수급자를 포착하여 수급권 확인 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그뿐만 아니라, 수급권 확인조사 과정에서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돌봄이 필요한 고령의 수급자를 발굴해 생필품 지원, 말벗 등 공단 사회공헌서비스를 연계한 복지지원 체계도 함께 마련한다.

한편, 이번 협약사업은 한국수자원공사에 상수도 관리를 위탁한 22개 지방자치단체 중 고령 수급자 비율이 높은 정읍시, 거제시 등 5개 지역에서 시범 운영한다. 공단은 수도 사용정보를 매월 수집·분석해 향후 분석 정확도와 정보 활용도를 높이고, 대상 지역도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날 정태규 국민연금공단 연금이사는 “이번 협약은 국민연금 급여의 정확한 집행뿐 아니라, 사회적 돌봄 공백해소를 위한 데이터(Data) 기반 복지모델로서 의미가 크다.”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수급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복지 향상을 도모하는 제도적 기반을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오상근 기자

모항해나루가족호텔, 여름 성수기 맞이 가족형 게임존 확장 오픈

전북개발공사가 운영 중인 모항해나루가족호텔이 여름 성수기 시즌을 앞두고, 신규 ‘가족형 게임존’ 확장 오픈 준비를 완료했다.

이번에 확장된 게임존은 코인노래방, 스포츠게임, 키즈오라기기 등을 갖춘 가족친화형 공간으로, 호텔 투숙객이 남재에 구애받지 않고 아이들과 함께 쾌적하게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조성되었다.

또한, 올해 성수기를 맞아 모항해나루가족호텔은 전 객실 냉난방기 교체, 객실복도 리모델링, 게임존 확충 등 주요 편의시설 및 호텔 환경 개선에 힘썼으며, 노후된 냉난방기를 전면 교체함으로써 쾌적한 실내환경을 제공하고, 복도 리모델링을 통해 전체적인 호텔의 분위기를 세련된 공간으로 탈바꿈했다.

전북개발공사 사장은 “호텔 이용객

의 편의성과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게임존 확장 등의 시설개선을 시행하였다”며 “앞으로도 이용객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모두가 편안하게 머물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모항해나루가족호텔은 지역 주민과 가족 단위 여행객 등 모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최적화된 숙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오상근 기자

LX, 경영정상화 원년 선포

청렴·윤리경영으로 경영정상화 ‘총력’

LX한국국토정보공사(LX·사장 어명소)가 청렴하고 투명한 윤리경영을 통한 경영 위기 극복과 경영정상화에 총력을 기울인다.

이는 임직원의 윤리의식 강화와 건전한 조직문화 조성이 전사적 혁신과 지속 가능한 성장의 중요한 출발점임을 강조하는 메시지다.

LX는 7월16일 전북 전주시 본사에서 어명소 사장, 이태용 상임감사를 비롯한 직원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 윤리경영 의무 대면 교육’을 실시했다.

어명소 사장은 윤리적 리더십과 책임감의 중요성을 역설하면서 더욱 투명하고 건강한 조직문화를 만들고 위기에 강한 LX로 거듭날 것을 강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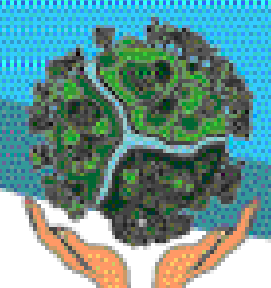
특히 어명소 사장은 “한마음 한뜻으로 이겨내자”는 경영정상화 로드맵을 설명하며 “선배들이 물려준 LX를 우리가 바로 잡아 후배들에게 건강하게



물려줘야 한다”면서 “올해가 반드시 경영정상화 원년이 되어야 하며 모두가 허리띠 졸라매고 청렴한 자세로 최선을 다할 때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LX는 이날 높아진 국민 눈높이에 맞는 윤리경영을 위해 직원 개개인의 윤리의식 함양을 강조하고 각종 사례교육을 통해 조직 내 청렴한 조직문화 정착의 필요성에 대한 실천의지를 다졌다.

/오상근 기자



지구를 시원하게 식혀주는 에너지 절약 실천 방법

1. 사용하지 않는 전기제품은 플러그에서 뽑기
2.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 제품 아껴쓰기
3. 겨울철 실내 온도를 20도로 유지하고 내복 입기
4. 전기 사용량이 많은 시간대에는 전기 사용량을 줄이기



▶ 전주매일 에너지행동맨